

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

민중주체의 냉전종결을 향하여

서 승 Suh Sung

포지움사무국 연락담당

主催：「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執行委員會

主管：台灣事務局・台灣地區政治受難人互助會

協贊：日本事務局、韓國事務局

後援：中國統一聯盟

台灣社會科學研究會

夏潮聯合會

勞動黨

時間：1997年2月22日～23日

場所：劍潭海外青年活動中心（台北市中山北路四段十六號）



민중주체의 냉전종결을 향하여

서 승 Suh Sung

포지움사무국 연락담당

민주주의의 냉전종결을 향하여

서 승 Suh Sung

심포지움사무국 연락담당

오늘 여기 타이베이에, 우리들은 서울에서, 광주에서, 제주도에서, 오키나와에서, 도쿄에서, 오사카에서 모였습니다. 최근 국제화, '세계화'의 구호아래 여러가지 국제회의나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오늘의 모임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찌기 구미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우리들의 선열. 선배들이 아시아 곳곳에서 '반제 민족해방'의 깃발을 들고 함께 싸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여, 민족해방투쟁을 해온 민중이 비로소 주인이 되는 새역사의 시작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반파시즘전쟁'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가려져 있던 미소간의 모순이 드러남으로써 냉전이 시작되었고, 미국과 각지역 독재정권의 '국가테러리즘'에 의하여, 아시아의 민중들은 식민지시대에 못지않은 참혹한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동아시아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전통을 이어받아 고난의 길을 걸어온 자매. 형제들이 반세기의 긴 세월을 넘어 여기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 모임은 원래 대만의 벗들에 의해 구상되었습니다. 대만의 벗들은 "50년대 백색테러"의 폭풍속에서 투쟁하다 고문당한 분들, 학살당한 분들의 유가족이 중심이 되어 "대만지구 정치수난자 호조회"에 뭉쳐, 스스로 겪은 국가폭력에 대한 노여움과 한,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지향했던 이상이나 운동이 결코 꺾일 수 없다는 굳은 의지로, 희생자의 신원(伸冤)과 국가테러리즘의 단죄, 그리고 지난 날 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통일과 사회주의'의 이념을 높이 들고 운동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1993년, 육장리 공동묘지에서 백색테러로 처형당한 정치수난자의 묘가 발굴되어, 마침내 '50년대 백색테러'의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 대만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문제는 '228사건'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고 명예회복, 배상 등의 정치적 해결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내외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대만정부의 정치적 해결을 다구치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 국제심포지움이 구상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의

벗들은, '50년대 백색테러'의 무참한 탄압에 대한 대만의 벗들의 인도적, 정치적 해결의 요구를 지지하고 그 실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반공'의 광풍이 휘몰아 친 동아시아의 냉전시대에 있어서, 대만 민중의 고난은 바로 한국이나 오키나와, 일본의 민중들이 겪은 고난이었음을 인식하고, 동아시아 민중의 공동의 운동으로 역사의 발걸음과 재평가의 작업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 대만, 한국, 일본에 제각기 사무국을 마련하고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을 추진해온 것입니다.

일본사무국에서는 1996년 5월, 심포지움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손을 댄 다음, 13번의 사무국 회의, 4번의 공개학술회, 그리고 동경, 오사카, 오키나와에서 결단식을 거행하여, 차차 많은 분들의 찬동과 관심을 모아, 참가 희망자를 죄다 받아들이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운동은 많은 분들의 뜨거운 지원금이나 학습자료 "백색테러"의 판매대금, 공짜번역 등의 자원봉사에 의해 지탱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의 내빈이나, 발표자, 토론자까지 포함한 모든 참가자가 항공비, 숙식비, 참가비 등의 큰 돈을 각자 지불하고 참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억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참가를 희망하거나 참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분들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로 참가할 수 없었던 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제 식민지배 및 냉전과 내전의 민족적 고통이라는 면에서 한반도와 대만은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감옥에 있을 때부터 대만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공내전의 시대, 중경(重慶)에 '중미합작소'라는 중국과 미국정부기관의 합동정치범 비밀감옥이 있었다는 것을 책으로 알고 있어서, 대만에도 저와 같은 처지의 정치범이 있고, 가혹한 정치범 감옥이 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했습니다. 1990년, 제가 출소를 한 해에 경도에서 린수양(林書揚) 선생님을 만나 뵈고 큰 감동을 받아, 대만정치범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대만에 반드시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대만의 벗들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온 한국의 출옥장기수들이 그들을 만나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 하며 서로의 고생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향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고 했던 변혁운동의 총화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1995년 늦가을,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려, 옥중 44년의 김선명선생님과 옥중 34년의 린수양선생님이 단상에서 굳은 악수를 나누는, 한국과 대만의 출옥장기정치범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서로의 경험을 충분히 나눌 시간이 없어 린선생님이 그분들이 심포지움에 초청하셨습니다. 동아시아 민중운동의 성과와 실패를 한귀퉁이나마 총화하는 것이 이 심포지움의 과제였는데, 아직 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치고 750명 가량의 정치범이 투옥되어 있는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비전향 출옥정치범의 출국이 불가능하여, 역사의 증언자로서 한국의 노정치범 여러분들이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만민중의 문제가 동아시아민중의 공통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는 근대이

후, 정확하게는 일본의 명치시대이후,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온 운명의 공통성이 있으며, 일제가 만들어 낸, '아시아'지역질서에 저항하면서 '아시아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이루어왔습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동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는 일본에서부터 미국으로 옮겨졌지만, 미국은 냉전의 시작을 계기로 일본군국주의 해체를 중단하여, 일본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추진의 대항자 또는 동반자로서 이용해 왔습니다.

스기하라(杉原) 교수는 "백색테러"의 머리말에서, 냉전하에서의 일본이 (미국, 한국, 대만의 국가테러리즘의) 억압정책을 일관되게 지지, 원조하여, 그곳의 민중들에 적대해온 것이 갖는 의미로서 "첫째, 독재정권을 정치, 경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민중에 대한 억압을 승인하고, 둘째, 그 대신 스스로의 식민지배와 전쟁책임에 대한 추궁을 면죄받고 과거를 은폐시켰으며, 셋째, 독재정권과 유착하여 경제진출을 꾀해, 현지 민중의 수탈, 착취로 이익을 얻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일본과 유착한 동아시아의 독재정권이 일제 유산의 청산을 실질적으로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냉전체제는 세계적인 규모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를 지배했고, 백색테러는 미국의 지배지역에서 마구 저질러졌으며,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일본 중심의 지역질서가 미국의 지배와 권위를 배경으로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명치 이후의 일본 중심의 지역질서와 그 역사적 지배구조의 연속성이 이 지역민중의 운명을 비뚤어지게 해온 것입니다.

나는 옥중에서, 젊었을 때 정의감에 불타 사회변혁운동에 참가하여 옥에 갇힌 노정치범들과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몇분들은 식민지시대 일제의 감옥에 갇힌 바도 있었습니다.

김병인선생님은 조선의 남쪽 끝인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태어났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일제가 패하여 시즈오카(静岡) 형무소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와 혁명운동에 몸을 던져 남노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위원장대리, 도당유격대 사령관 등을 역임하다 1954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이후 1988년 9월에 청주보안감옥소에서 출옥하여 4개월후에 한국최후의 남로당 고급간부로서 돌아가시기까지 인생의 3분의 2, 40여년의 옥중생활을 하셨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해방전에는 일제의 지배하에서, 해방후에는 친미반공 독재정권아래에서 투옥되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사상전향제도에 시달려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겨레에게 해방이 있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으며, 근대이후 동아시아 백년사에 있어서 제국주의시대와 냉전시대의 연속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패망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국, 월남등은 분단되어 참된 해방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한반도와 중국에서의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정치적 과제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사고'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서,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이라는 테마는 '어둡고 과거지향적'이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포스트냉전>의 시대인데도,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아시아시민사회'나

‘국경을 넘는 시민사회’ 등의 언설이 흥미하고 있는 오늘, ‘민족’이나 ‘제국주의와 민족해방투쟁’을 축으로 한 이 심포지움이 상당히 고풍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1989년, 베를린의 벽의 붕괴로 시작된 동구, 소련사회주의권의 해체가 이른바 ‘포스트냉전’ 시대의 막을 올렸다고 합니다. ‘소련국의 자살’이 동서 양대 블록의 대립구조를 무의미하게 하고, 핵무기확장의 악순환과 핵전쟁의 위기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진영의 단속’이 악화되어, 즉 미국이 냉전시대와 같이 자기진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독재정권이나 독재자를 키우고 지켜 줄 필요가 없어졌기에, 한국처럼 전직 대통령이 체포되어 법정에서 서는 사태도 일어나고, 이른바 ‘가치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냉전시대란, 무조건적인 평화나 화해의 시대가 아니라 ‘미국, 일국패권의 시대’의 도래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포스트냉전시대란 지구적인 규모의 미국의 일국 정치.군사패권, 일원적 세계자본주의 시장형성, 미국의 가치, 이데올로기의 보편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익이 막힘없이 추구되어지는 시대이며, 미소양극체제에서 소련의 일국이 붕괴되어도 미국의 일국이 정치.군사.이데올로기적인 냉전구조를 고스란히 지닌 채, 우뚝 서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희망의 빛을 띤 ‘포스트냉전’의 환상은 이미 한반도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허위임이 드러났지만, 1995년 9월에 미군병사가 오키나와의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들불처럼 타올랐던 오키나와의 반미.반기지 투쟁속에서 그 허구성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냉전이 끝났는데, 왜 미국은 군비와 병력을 그대로 오키나와에 두는 가’라는 소박한 의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 사람을 위해 기지가 존재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황당 무개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국익 또는 미국의 냉전정책에 편승한 일본 보수파의 이익을 위해 기지는 필요하다’고 솔직히 속을 보여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4월의 ‘미일안보 공동선언’으로, 기존의 미일안보조약의 실질적인 개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포스트냉전시대에도 미일은 군사동맹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미일의 유사시 협력의 범위를 ‘극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일본주변 지역’으로 무한정 확대시키고 애매하게 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 미국의 전쟁에 참가하는 ‘집단지위권’의 단계에 경계에 발을 내딛었으며, ‘유사입법’의 현실화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21세기에는 거대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중국과 일본이 미국을 위협하는 지역패권국가로서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여, 미국에 있어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일간의 동맹이라고 전제하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패권을 계속해서 관철하기 위하여 일본을 미일안보조약의 틀속에 단단히 묶어놓고 중국과 적대하게 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명치이래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과 동아시아의 대립구조’를 21세기까지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미래, 우선 당면의 평화구조의 창조는, 일본명치이래의 대립구조의 해소, 즉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여 아시아와 화해하여 다각적이며 민중적인 평화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근대 백년의 동아시아의 대립을 일관되게 파악하여 그속에서 역사를 발굴하여 옳게 위치매김을 하고자 하는 이 모임이야말로 미래사고적이고,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의 규명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50년대 백색테러’, ‘제주 4.3민중항쟁’, 미국점령하 오키나와 등에서 저질러진 부조리하고 반인도적인 권력의 범죄의 청산없이 냉전의 종결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정치가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망언(속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카지무라(梶木) 관방장관은 작년 “조선반도 유사시 제일한국인이 도시게릴라를 시작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내외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는데, 요즘 또다시 “중국위안부는 공창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듭되는 망언으로 말썽을 피워온 에토(江藤) 전총무청장관은 한일합방은 “나라와 나라의 조약으로 결정한 것인데 무엇이 침략인가, 읍면단위의 합병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러한 일부 일본의 보수파 정치가의 망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나, 요즘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 등의 일본소비니스트들에 의한 일제의 예찬과 아시아 침략사의 정당화 또는 왜곡.은폐가 ‘자유주의 사관 연구회’,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등을 통하여 반동적인 언론과 어울리며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언론조작을 통해 청소년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해독을 뿌리고, 풀뿌리 파시즘이라고 할 만한 밑으로부터의 여론형성을 피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왜곡은 일제의 영광을 흠모하여 그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대국’의 지위를 요구하는 일부 일본인의 망동이지만, 그 의미는 아시아 백년사의 대립구조를 지배자의 입장에서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토론의 마당이자 동시에, 탄압에 쓰러진 분들을 위한 추도하고, 국가폭력의 수난자의 증언을 들으며, 수난자의 요구를 지지하여 추진하는 운동의 마당이기도 한, 이 각별한 심포지움의 과제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냉전시대의 비인간적 국가테러리즘의 실태를 발굴, 기록, 기억하고, 정부가 보유하는 전기록의 공개를 촉구한다.
2. 희생자의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의 실현을 촉구한다.
3.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시기, 냉전시기, 포스트냉전시기를 일관된 헤게모니구조에서 파악하여 아시아 근현대사의 올바른 인식을 심화시킨다.
4. 포스트냉전의 환상을 바로잡고 21세기까지 이어져가려고 하는 냉전의 진정한 종식을 위해 노력한다.
5. 미일중심의 ‘아시아’질서의 전환과 동아시아에서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구조의 창조를 지향한다.

6. 이상의 것을 실현하기 위해, 운동측에서도 냉전시대의 자신의 운동과 사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비판과 평가를 하여, 심포지움을 아시아 민중의 지속적인 운동과 사상의 발신소로서 키워나간다. 그러한 뜻에서 내년 1998년, '제주4.3민중항쟁'을 기하여 제주도에, 내후년 1999년에는 오키나와에서, 3년후 2000년에는 '광주민중항쟁'의 20주년을 맞이하는 광주에서, 4년후에는 다시 대만으로, 이 모임을 지속해나간다.

우리는 이 모임을 열심히 준비해왔으나, 충분치 못한 점이 있을 것이며, 모든 분들의 기대와 요망에 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준비는 가야할 길의 3분의 1밖에 안되며, 다음 3분의 1은 이심포지움의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3분의 1은 이심포지움을 지속해 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에, 최종적인 성공은 이심포지움에 참가 또는 찬동하는 모두의 노력의 몫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가로 우리 준비한 축의 부족을 메꿔주시고 심포지움을 성공리에 끝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길고 큰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나갑시다.